2015 광주서 만나는 대형 공연



'노트르담 드 파리' 프랑스어 버전이 온다

올해 광주에서 만날 수 있는 대형 작품들은 어떤 걸까. 광주문예회관 대극장대관 일정을 중심으로 올해 공연 라인업을 살펴본다.(공연 일정 은 변경될 수 있음)

3월 13~15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리는 프랑스 오리지널 팀 내한 공 연 '노트르담 드 파리'는 가장 큰 기 대작이다. '노트르담 드 파리' 한국 공연 1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광주에서 처음 선보이는 프 랑스어 버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. 지금까지 광주에서는 한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이 공연됐었던 터 라 프랑스 오리지널 버전의 매력을 접할 수 없어 아쉬웠었다.

이번 공연에는 10년 전 팬들을 만 났던 뮤지컬 스타 맷 로랑이 콰지모 도 역을 맡아 그대로 출연하며 그랭 그와르 역의 리샤르 샤레스트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.

빅토르 위고의 동명 원작을 뮤지컬 로 옮긴 '노트르담 드 파리'는 수많은 히트 뮤지컬 넘버와 무용수들의 완 벽한 몸놀림이 인상적인 작품이다.

4월에는 '지킬 앤 하이드'도 예정 돼 있다. 지난해 한국어 버전 10년을 기념해 진행중인 공연으로 4월 초 서 울 공연이 마무리되면 지방 투어에 나선다. 'Once u어 pon a dream' 등 주옥같은 멜로디의 뮤지컬 넘버 와 스토리로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

'지킬 앤 하이드' '팬텀' 등 세계적 화제작들 대기 조성모·서태지·쿨·조용필 등 스타 콘서트도 열려



을 받아온 작품이다.

화제의 작품 '팬텀'도 관객들을 만 난다. '엘리자벳' 등을 무대에 올린 EMK뮤지컬컴퍼니가 제작한 작품 으로 1991년 브로드웨이 초연 후 한 국에서는 첫선을 보인다.

가스통 르루의 원작 소설을 무대 로 옮긴 '팬텀'은 그의 소설의 또 다 른 뮤지컬 버전인 초히트작 '오페라 의 유령'과는 차별화된 매력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. 베일에 싸인 팬텀의 과거사와 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 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세련된 클래 식 음악과 정통발레 등이 선보인다. 4월 서울 공연을 시작하는 '팬텀'은 주인공 역으로 최근 많은 인기를 얻 고 있는 가수 박효신이 유력, 눈길을 끌고 있다.

지난해 광주에서 공연돼 많은 관 심을 모았던 5·18 연극 '푸르른 날 에'는 오는 6월 다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. 지난해 아쉬웠던 공연장 문제를 해결, 올해는 작품에 적합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을 진

그밖에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연인들의 사랑을 그린 뮤지컬 '1789-바스티유의 연인들', 가수 김

광석의 노래를 모티브로 만든 장유 정 연출의 '그날들'도 대기중이다.

가수들의 콘서트 소식도 활발하다. '무한도전-토토가'에 출연했던 가 수 조성모는 오는 10일 광주문예회 관 대극장에서 '조성모 독무대' 공연 을 갖는다. 이번 공연에서는 데뷔곡 이었던 '헤븐'을 비롯해 '다짐', '가

시나무' 등 히트곡들을 선사한다. 문화대통령 서태지도 광주에서 팬 들을 만난다. 오는 17일 염주체육관 에서 열리는 콘서트 '콰이어트 나이 트(Quiet Night)'는 5년간의 공백을 깨고 지난해 새음반을 발표하며 활 동을 재개하며 기획한 무대다.

또 다른 '토토가' 출연가수인 '쿨' 도 광주팬들을 만난다. 오는 3월 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'안녕 들 한가요?'는 쿨의 데뷔 20주년 기 념 무대다.

지난 1994년 1집 '너이길 원했던 이유'로 데뷔해 '운명', '애상', '해변 의 여인' 등 수많은 히트곡을 냈던 쿨은 2009년 11집을 마지막으로 활 동을 접었었다.

이재훈, 김성수와 함께 여자 멤버 쿨의 빈자리는 '히든싱어'에 출연했 던 가수 김보경 등이 맡게 된다.

그밖에 이선희의 콘서트, 엠씨더 맥스의 공연도 예정돼 있으며 하반 기에는 조용필 콘서트도 열린다.

/김미은기자 mekim@kwangju.co.kr



에른스트 감펠, 목공예 '치유의 미학'

21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

광주 신세계갤러리는 갤러 리 LVS와 공동으로 독일 출 신 목공예작가 에른스트 감펠 (Ernst Gamperl)의 목공예 작품 40여 점을 소개하는 전 시 '에른스트 감펠: 치유의 미학'을 열고 있다. 전시는 오 는 21일까지다.

감펠은 정규적인 미술교육 을 받지 않았다. 17세때부터 목공일을 배우기 시작해 현재 는 세계 곳곳에 초대돼 활발 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.

이번 전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실용적인 소품은 물론 조형성에 중점을 둔 다양한 크기의 완결미를 갖춘 오브제들을 선보이고 있다. 정갈하고 소 박한 작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무 의 흠집과 상처, 리드미컬하게 휘어진 곡선과 뒤틀린 형태가 눈에 띈다.

감펠에게 나무를 자르는 방식은 재료 선택만큼이나 작품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다. 보통 목공예는 나무의 가로 방 향을 살려 작업을 하는데 반해 감펠은



180년 된 나무로 제작한 2012년 작품

세로 방향으로 재료를 자르고 결을 거 슬러 형태를 깎아 나간다. 완전히 마르 지 않은 나무의 독특한 결을 살려 가공 하는 과정 이후 남아있는 습기가 마르 면서 자연스러운 형태 변화가 추가적으 로 발생하게 된다. 흠집이 있거나 옹이 가 있던 부분이 뒤틀리고 찢어지면서 그 자체가 작품이 된다.

10일과 17일 오전 11시에는 나무를 이용해 '양'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(사 전 예약)이 진행된다. 문의 062-360-1630. /김경인기자 kki@kwangju.co.kr



'온천욕해요'

자연과 인간의 따뜻한 공존

신선윤 '동물원 일상' 전 31일까지 소아르 갤러리

에서 인간과 동물이 함께 어울리는 삶 을 이야기한다. 따뜻하면서도 달콤한 색감은 이러한 삶을 동경하게 만든다. 화순 소아르 갤러리는 오는 31일까지 신선윤씨를 초대해 '동물원 일상'전을 연다. 신씨의 첫 번째 개인전이다.

작가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화려한 색들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 다. 보는 이들에게 아름다움과 함께 긍 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작품들이다.

작품의 주요 요소는 신씨가 즐거움을 얻었던 동물워과 또 일상에서 벗어나 항상 여유를 얻었던 산, 강, 바다 등이 다. 그 안에 공존하고 있는 다채로운 생 명력은 신씨 작품의 모티프가 됐다.

작품 속 인간들은 식물과 동물들에 비해 작게 표현돼 있다. 인간은 거대한 자연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는 생각에서 다. 특히 작품 속에서 인간을 향해 사랑 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뱀, 곰, 악어, 기 린 등 동물들은 인간을 보호하는 보호 자처럼 느껴진다. 신씨는 전남대 미술 학과를 졸업했다.

문의 061-371-8585.

/김경인기자 kki@kwangju.co.kr









지킬 앤 하이드



